

“젖잘싸”…전남 골볼, 1점차 아쉬운 은메달

제45회 전국 장애인체전



남자부 골볼 인천에 7-8 패…대회 4연패 무산
이진 감독 “선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대전”

BUSAN 2025
눈물의 하루를 보낸 전남 골볼 선수단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시 출발선에 선다.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남자부 골볼(선수부)에서 대회 4연패에 도전했던 전남은 눈 앞에서 승리를 놓쳤다. 전남은 지난 2일 열린 인천과의 결승에서 7-8 패배를 기록했다.

1일 진행된 4강에서 '강호' 충남을 9-6으로 꺾었던 만큼 우승 기대감은 컸지만 아쉽게 1점 차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래도 의미 있는 은메달이었다. 1-6으로 일방적인 흐름으로 경기가 전개되면서 멘탈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선수들은 후반 5점을 연속으로 추격해 7-8까지 따라붙는 명승부를 펼쳤다.

경기가 끝난 뒤 현장에는 눈물바다였다. 아쉬움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최선을 다해 달린 것에 대한 위안의 눈물이기도 했다.

지휘봉을 잡은 이진 감독은 “4연패 부담이 없지 않았다. 그동안 잘해와서 주변에서는 경기 시작도 전에 ‘우승 축하’ 분위기였다. 이를 경계했지만 초반 실수가 많았다”며 “그래도 선수들이 1-7에서 7-8까지 따라간 모습이 대견했다. 이번 준우승을 보란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승전에서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하며 변화를 줬고, 이른 시간 ‘인천 킬러’ 안영준을 투입해 추격골을 끌어내며 흐름을 바꿨다.

하지만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게 아쉬웠다.

이 감독은 “주축 김명진·손원진과 파키스탄 아시아-태평양선수권을 치르고 체전 개막 3일 전 귀국했다. 특성상 팀워크가 중요하데, 짧은 일정에 합을 맞추기 쉽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충남을 넘긴 4강전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 결승 초반 실수가 많이 나고 흔들림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주장이자 센터 포지션을 맡은 손원진은 “결승 초반 큰 점수 차로 끌려가며 ‘힘없이 지는 건 아닐까’ 걱정했다. 그래도 한 점씩 좁히며 분위기를 가져온 순간들이 기억에 남는다”며 “마지막 공 하나가 골대를 아슬하게 빚겨갔다. 연장전 갔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느꼈는데 아쉽게도 올해 남은 리그전까지 부상 관리하며 마무리를 잘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전남 골볼은 2018년 창단한 실업팀(선수 6명)으로, 현재 국가대표 3명을 보유한 강호다. 선수들의 인연도 흥미롭다. 최고참 김철환은 전 국가대표로 인천아시아게임 당시 감독을 맡았고, 그때 손원진은 선수로 뛰었다.

이후 서울맹학교 동창인 김명진·안영준·홍세복이 팀에 합류했고, 유소년 국가대표였던 강인수는 타 사·도 소속으로 뛰다가 전남 실업팀에 가세했다.

팀의 막내 안세복은 골볼 입문 계기에 대해 “학교 다닐 때도 학생체전이나 전국체전을 다른 종목으로 나갈 만큼 운동을 좋아했다. 골볼에도 관심이 생



전남 골볼 남자대표팀이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고덕사회체육관에서 패스·이동 전술을 훈련을 하는 모습.

〈이진 감독 제공〉

겼고,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아보자는 생각에 원진 형 추천을 받아 실업팀에 들어와 같이 운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생활권이 서울인 선수가 많아 현재 서울(고덕사회체육센터) 중심으로 훈련하고 있다. 전남에 훈련장이 있지만, 아직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아 훈련장이 준비된다면 전남에서 훈련 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신인 발굴과 저변 확대는 과제다.

전남 영암 은광학교가 골볼 운영을 중단했고, 코로나 이후 학교 골볼 수업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골볼 공이 1.25kg에 매우 단단해 부상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선수들이 소리로 공의 위치를 파악하며 팀워크를 기르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강조한 이 감독은 “골볼은 바닥에서 하는 핸드볼이

다. 눈을 가리고 하는 스포츠지만, 비장애인에게 ‘눈으로 보는 스포츠’다. 5분만 시간을 내 경기를 보면서 매력을 느껴주시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내년 제주 대회에서 금메달 탈환이 단기 목표”라며 “여자팀 최초 메달권(동메달)에도 도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부산=박연수 기자 training@kwanju.co.kr

전남 보치아 첫 메달…조면기 “랭킹 3위 목표…태극마크 달고 싶어”

BC4 종목 은메달 획득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전남 보치아가 BC4 종목 첫 메달을 신고했다.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보치아 남자 개인전 BC4(선수부)에서 조면기(EY한영)가 남자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그동안 BC3·BC4에서 입상이 없던 전남은 ‘첫걸음’을 내디뎠다.

조면기는 “처음엔 실감이 잘 안 났는데 하루 지나니 정말 좋은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체전을 앞두고 압박감 때문에 공 컨트롤이 흔들려 스트레스를 받았다. 막상 대회에선 떨지 않고 은메달이라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 기뻐했다”고 말했다.

조면기는 이번 체전에서 혼성 페어(2인조) 출전이 무산돼 개인전만 나섰다.

올해 선수 생활 9년 차인 조면기는 학창 시절 체육 시간에 보치아를 처음 접했고, 22세 때 광주 영주체육관에서 지도자를 만나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보치아의 매력에 대해 “흰색 표적구(잭볼)에 공을 ‘딱’ 붙였을 때의 손맛”을 꼽았다.

보치아는 흰색 표적구에서 자신의 공(빨강·파랑)을 더 가깝게 붙이는 구기종목으로 중증장애인이



지난 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보치아 남자 개인전 BC4(선수부)에 출전한 전남 조면기(EY한영)가 은메달을 수확했다.

참가하는 패럴림픽 정식 종목이다. 조면기의 개인 최고 성적은 개인전 은메달, 페어전 금메달이다. 조면기의 다음 목표는 국가대표다. 보치아는 등

급별 국내 선수권 2년 랭킹 합산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한다.

조면기는 올해 랭킹 4위로 올라섰고, 체전 직후 2주 뒤 열리는 회장배에서 승점 추가를 노린다.

그는 “랭킹 3위권까지 올라가 내년엔 태극마크를 달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현재 그는 광주에 거주하지만 훈련은 여수에서 소화한다.

한때 주 5일 여수로 내려가며 강행군을 이어갔고, 최근엔 주 3일 광주, 2일 여수로 훈련 루틴을 조정했다.

“직접 운전해 왕복하지만, 뜻하는 바가 있어 즐겁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승균 코치는 “올해 체전 보치아 전남 대표는 신인급 선수들이 주로 출전했다”며 “대표 9명 중 6명이 여수 소속인 만큼 여수가 보치아의 메카이다. 훈련 환경도 좋고, 선수들이 새롭게 많이 발굴된 만큼 앞으로 선수들이 기록도 많이 내고 조면기 선수의 기량 유지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조면기는 “먼 거리 오가며 도와주신 지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전남 보치아의 첫 BC4 메달인 만큼 더 욕심 내서 다음 목표에 도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부산 글·사진=박연수 기자 training@



여자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단.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여자 핸드볼, 세계선수권 앞두고 소집 훈련

19일 출국…튀니지와 친선 경기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단이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3일 충북 진천 선수촌에 모였다.

이계정 감독(삼척시청)이 지휘하는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18일까지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하고 19일 튀니지로 출국한다.

튀니지 대표팀과 두 차례 친선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 뒤 24일 대회가 열리는 독일로 이동한다.

올해 세계선수권은 독일과 네덜란드가 공동 개최하며 26일 개막한다.

우리나라는 노르웨이, 앙골라, 카자흐스탄과 함께 H조에 편성됐으며 조 3위 이상을 해야 결선리그에 진출할 수 있다.

한국의 역대 세계선수권 최고 성적은 1995년 우승이다.

올해로 27회째인 여자 핸드볼 세계선수권에서 유럽 국가가 아닌 나라가 우승한 것은 1995년 한국, 2013년 브라질 두 번이 전부다.

2000년 이후로 우리나라가 세계선수권 4강에

든 것은 2003년 3위가 마지막이다.

직전 대회인 2023년에는 32개 참가국 중 22위에 그쳤다.

이계정 감독은 “이번 소집 훈련에서 선수들 컨디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팀 전술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여자 핸드볼 세계선수권 출전 국가대표 선수단

▲감독 = 이계정(삼척시청) ▲코치 = 정영호(서울시청) 강일구(대한핸드볼협회) ▲골키퍼= 박재영(삼척시청) 박조은(SK) 정진희(서울시청) ▲레프트 윙= 윤예진(서울시청) 이원정(대구시청) ▲레프트백= 허유진(삼척시청) 김다영(부산시설공단) 송지은(SK) 우빛나(서울시청) ▲센터백= 이연경 김연우(이상 경남개발공사) 김민서(삼척시청) ▲라이트백 = 이혜원(부산시설공단) 정지인(대구시청) ▲라이트윙 = 전지연(삼척시청) 차서연(인천시청) ▲피벗= 김보은(삼척시청) 송해리(부산시설공단) 연지현(광주도시공사) /연합뉴스

옥태훈 vs 이태훈…KPGA 상금왕은 누구

내일부터 최종전 출격

옥태훈과 이태훈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시즌 최종전에서 상금왕 경쟁을 벌인다.

KPGA 투어 2025시즌 마지막 대회인 KPGA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11억원)은 6일부터 나흘간 제주도 서귀포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파72·7259야드)에서 열린다.

이 대회 전까지 상금 순위는 옥태훈이 10억6964만원으로 1위, 이태훈은 8억6338만원으로 2위다.

이태훈이 우승하면 상금 2억2000만원을 받아 10억8338만원이 되며, 옥태훈이 18위 미만의 성적을 내면 이태훈이 역전할 수 있다. 옥태훈은 상금 1위를 굳히는 것은 물론 KPGA 투어 역대 시즌 최다 상금 기록에도 도전한다.

옥태훈이 우승을 차지하면 최상호 이후 33년 만에 단일 시즌 4승도 달성한다. 시즌 4승은 KPGA 투어 단일 시즌 최다승 기록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

산책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찾그릇에 뜬 달 : 김기현×정우식

일시 : 2025-10-31(금) ~ 2025-11-30(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400회 정기연주회

'혁명가들'

일시 : 2025-11-14(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